

정 사퇴...표심 어디로 민주당 경선 최대 변수

명·낙, 주요 승부처 구애경쟁 본격화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분수령'
호남 항배 주목...추 전 장관 행보 관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중도 사퇴하면서 민주당 경선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전 국무총리의 지지층 표심을 '호남표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명·낙 구애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전남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히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정 전 총리는 그동안 같은 호남 출신으로 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반 이재명'을 고리로 단일화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이날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 전 총리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배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한 결정"이라며 "어떤 역할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본선 직행이나' '결선 투표나'의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호남 경선에 올인하고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복잡한 셈법 속에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이 지사 캠프 진영은 분주히 움직이며 정 전 총리의 '표심' 끌어오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현재까지의 추세가 호남에서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 순회경선과 1차 슈퍼위크에서 거둔 과반 득표율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호남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모실) 의지는 당연히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성심을 다해 낮은 자세로 잘 모시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정 전 총리와 직접 연락하고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도 정 전 총리 지지층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력·지역·정체성 등에서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 세력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전 대표측은 호남 출신 유일 후보라는 대표성을 확보한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장 이낙연 캠프 측 관계자들은 정 전 총리가 후보직을 내려놓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캠프 핵심 실무진들과의 개별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조기철 기자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가끔씩 비를 뿌리며 흐린 날씨를 보인 14일 오전 추석을 맞아 배 출하가 한창인 나주시 금천면의 한 농장에서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을 서두르고 있다. /김생훈 기자

태풍 '찬투' 17일 광주·전남 직접 영향권

시간당 강수량 최대 80mm
"경로·영향범위 아직 유동적"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오는 17일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다. 강풍을 동반한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찬투는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에 있으며 태풍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35m이고 강도는 강한 수준이다.

찬투는 16일 오전까지 태풍의 진행을 막는 동풍류에 의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정체하다가 같은 날 오후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이후 17일 새벽 제주도에 근접하고 같은 날 초속 29m의 중간 수준 강도를 유지하며, 남해상을

통과한 뒤 18일 새벽 울릉도·독도 남동쪽 해상을 지나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오전까지는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제주도에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에 20~80mm(많은 곳 전남 남해안 120mm 이상), 경남권(경남 남해안 제외)과 전북 남부, 경북권 남부에 10~4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때는 제주도가 16일 오후~17일 낮, 전라권 17일 새벽~오후, 경상권은 17일 아침~밤이다.

이 시기 제주도는 50~150mm(많은 곳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 지리산 부근은 50~150mm(많은 곳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태풍 찬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는 17일이고 이동속도에 따라 그 영향이 18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고도별 고기압의 위치와 영역의 변화에 따

라 태풍의 이동 경로와 영향 범위는 아직 유동적이다.

전남지역은 목포와 여수 항만등을 중심으로 소형 어선은 육지로 인양하고 중형어선은 피항토록 유도하면서 유동적인 태풍의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등산과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내 탐방로와 야영장은 16일 오후 2시부터 탐방객 입장이 통제된다.

현재 예상대로 찬투가 제주도 부근을 지나더라도 경로에 따라 강한 강수 집중구역이 변할 수 있다. 남해안으로 가면 충청도와 강원 영동에, 제주도 남쪽으로 이동하면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상과 하층 대기의 고기압이 강화될 때는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해 태풍의 상하층이 분리되며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태풍의 정체 기간이 늘어나고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추석연휴 이동량 작년보다 3.5%↑ 전망

귀성 3시간50분·귀경 8시간 소요

올 추석 하루 평균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용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17~22일) 이동 인원은 총 3,226만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평균 538만명이 이동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72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 추

석보다는 약 3.5% 증가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추석보다는 약 16.4% 줄어든 것이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최대 62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추석 당일보다 10.0% 증가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72만대로 작년 추석보다 7.7% 늘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내다봤다.

교통연구원은 귀성 때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30분, 서울→광주 3시간 50분, 귀경 때 평균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8시간 40분, 광주→서울 8시간으로 각각 추정했다. /최환준 기자

경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호 차 생산

축

“광주 시민의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GGM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직원 일동



캐스퍼(CASPER)